

Team. 박하

DCU, 이대로 관참은가

광고워크샵1

DAEGU CATHOLIC UNIVERSITY



2022년 현재, 대구가톨릭대학교의 최근 5년 입시 추이를 분석

대부분 학과가 요구하는 내신 성적은 느슨해 졌으며, 경쟁률도 기대치와의 차이가 있었다.

■ 대구가톨릭대학교 21년 수시 경쟁률 현황

	최근 5년간 경쟁률 평균	경쟁률 기대치	21년 경쟁률	현실-기대치
관광경영	10.8	10.7 (+0.5)	5.3	-5.4
호텔경영	13.1	12.1 (+0.5)	10.1	-2.0
안경광학과	20.3	9.3 (+0.5)	4.3	-5.0
기계자동차공학부	13.9	8.43 (+0.5)	4.5	-3.93
전자전기공학부	6.3	6.8 (+0.5)	5.1	-1.7
언론광고학부	7.9	7.55 (+0.5)	6.1	-1.45
경찰행정학과	18.3	10.26 (+0.5)	7.1	-3.16
아동학과	6.7	6.53 (+0.5)	5.0	-1.53

최근 5년간 경쟁률 평균을 통해 기대치를 산정하고, 21년 경쟁률과 비교했을 때 그 차이가 발생하였다.

자료: 대구가톨릭대학교

이는 주의를 계속 기울여야 할 탐색형 문제

2021년 눈에 띄게 줄어든 신입생 총원율은 특히나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문제

■ 신입생 총원율 연도별 추이

출처: 대구가톨릭대학교

공시연도	모집인원 (정원내)(명) (A)	입학자 (정원)(내)	신입생 총원율 (정원)(내) (B/A)*100	신입생 경쟁률
		합계 (B)		
2021	2,864	2,399	83.8	5.4:1
2020	2,863	2,863	100.0	6.9:1
2019	2,865	2,862	99.9	6.6:1
2018	2,865	2,864	100.0	6.2:1
2017	2,867	2,862	99.8	7.0:1

모집인원을 채우던 2020년 까지와는 다르게,
2021년 신입생 총원율이 83%까지 하락하였다.

자료기준일: 당해 연도 3월 학기 모집인원, 신입생 입학자 (단위:명, %)

그렇다면,

대구가톨릭대학교의 **재학생**은 어떤 모습일까?

중도탈락율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재적학생도 줄고 있는 실황이고, 중도탈락 비율과 자퇴생 수는 늘고 있다.

■ 대구가톨릭대학교 중도 탈락률 현황

출처: 대구가톨릭대학교

공시연도	재적학생 (명)(A)	사유별 중도탈락 학생(명)					중도탈락 학생비율 (%) (B/A)*100
		계(B)	미등록	미복학	자퇴	기타	
2021	16,871	925	49	253	549	74	5.5
2020	17,115	833	74	227	485	47	4.9
2019	17,676	909	88	257	497	67	5.1
2018	18,101	809	59	272	476	2	4.5
2017	18,912	808	67	72	469	0	4.3

	중도탈락 학생비율 정상수치	기대치	중도탈락 학생비율	현실 -기대치
2021	5.0%	4.8%	5.5%	+0.3
2020		4.8%	4.9%	+0.1
2019		4.8%	5.1%	+0.3
2018		4.8%	4.5%	-0.3

자료기준일:전년도,3.1~당해연도,2월말. 재적학생: 전년도,4.1.(단위:명,%)

중도탈락 비율 평균과 중도탈락 학생비율 정상수치는 5.0%라는 말을 참고하여 기대치를 산정, 2019년부터 문제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대구가톨릭대학교
DAEGU CATHOLIC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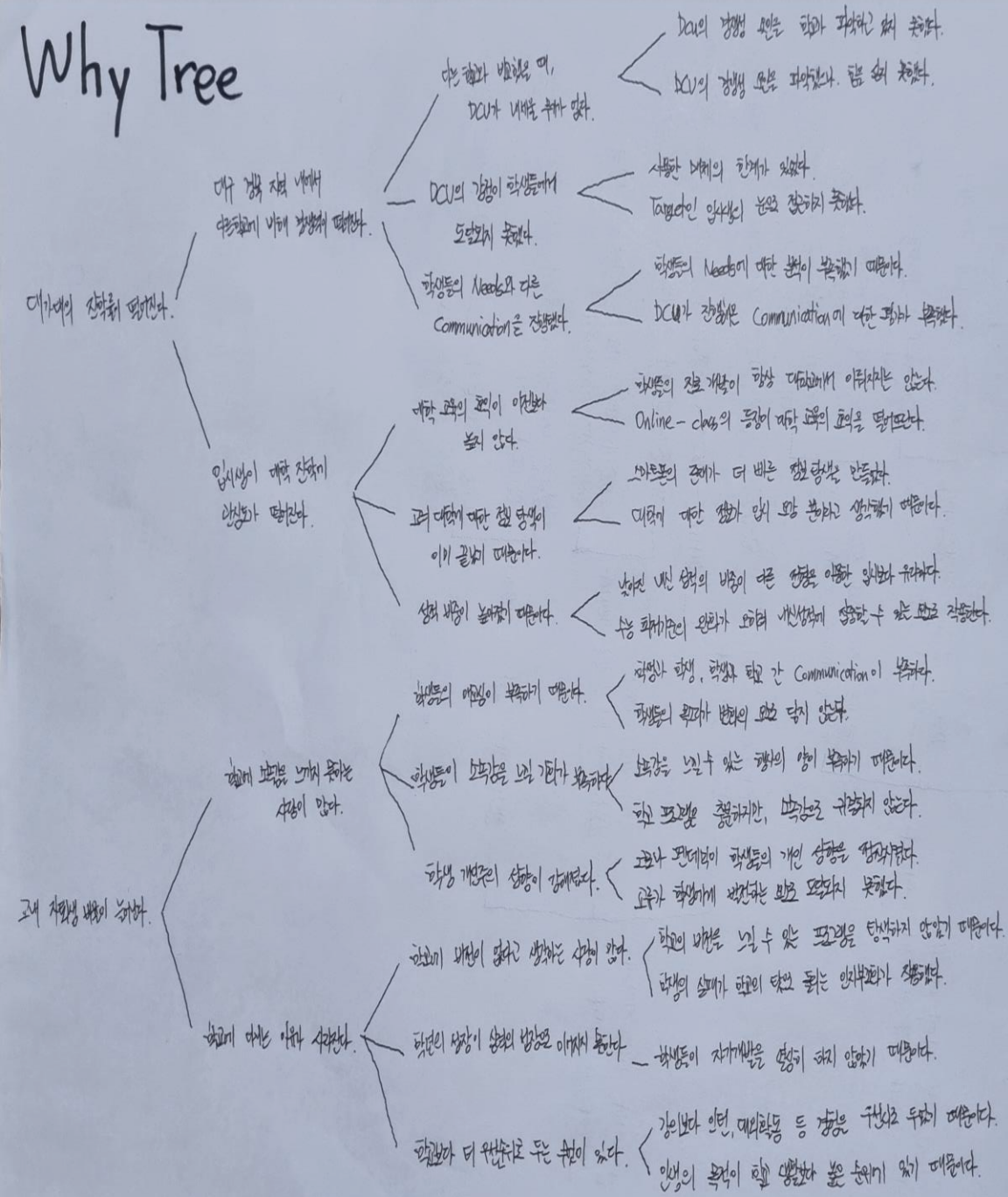
의 현재 상황을 분석한 결과,

대구가톨릭대학교의 **진학률**이 떨어진다.

교내 **자퇴생**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위 두 가지를 문제로 설정하여 과제를 진행하였다.

Why Tree



문제에 대한 깊은 원인 분석을 위해 Why tree 를 구성하였다.

Why tree: 문제의 원인을 세분화하여 상세한 원인을 찾기 위한 logical thinking의 중심적 도구

대가대 진학률이 떨어진다.

대구 경북 지역 내에서 다른 학교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

다른 학교와 비교했을 때,
DCU가 내세울 무기가 없다.

DCU의 경쟁성 요인을 학교가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DCU의 경쟁성 요인을 파악했으나, 힘을 실지 못했다.

DCU의 강점이 학생에게
도달되지 못했다.

사용한 매체의 한계가 있었다.

Target인 입시생의 눈으로 접근하지 못했다.

학생의 Needs와 다른
Communication을 진행했다.

학생들의 Needs에 대한 분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DCU가 진행해온 Communication에 대한
평가가 부족했다.

대가대 진학률이 떨어진다.

입시생이 대학 진학에 관심이 떨어진다.

대학 교육의 효익이
이전보다 높지 않다.

학생들의 진로 개발이 항상 대학에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Online-class의 등장으로 대학 교육의 효익이 떨어트린다.

고려 대학에 대한 정보탐색이
이미 끝났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의 존재가 더 빠른 정보 탐색을 만들었다.

대학에 대한 정보가 입시 요강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성적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낮아진 내신 성적의 비중이 다른 전형에 이용한
입시보다 유리하다.

수능 최저기준의 완화가 오히려 내신성적에
집중할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한다.

대가대 진학률이 떨어진다. 이 문제에 대한 Why tree를 구성한 결과,

DCU의 **경쟁성 요인**을 파악했으나, 힘을 실지 못했다.

대구가톨릭대학교의 **매체 선정과 도달 방법**,
그리고 **입시생의 정보탐색 과정**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위 상세 원인에 주목하였다.

교내 자퇴생 비율이 늘어난다.

학교에 다니는 이유가 사라진다.

학교에 비전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학년의 성장이 실력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학교보다 더 우선순위로 두는 무엇이 있다.

학교의 비전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탐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생의 실패가 학교의 탓으로 돌아가는 인지부조화가 작용했다.

학생들이 자기개발을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의보다 인턴, 대외활동 등 경험을 우선시로 두었기 때문이다.

인생의 목적이 학교 생활보다 높은 순위에 있기 때문이다.

교내 자퇴생 비율이 늘어난다.

학교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학생들의 애교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학생과 학생, 학생과 학교 간 Communication이 부족.

학생들의 목소리가 변화의 요소로 닿지 않는다.

학생들이 소속감을 느낄 기회가 부족하다.

소속감을 느낄 행사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학교 프로그램은 충분하지만, 소속감으로 귀결되지 않는다.

학생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졌다.

코로나 펜데믹이 학생들의 개인 성향을 정착시켰다.

교류가 학생에게 발전하는 요소로 도달되지 못했다.

교내 자퇴생 비율이 늘어난다. 이 문제에 대한 Why tree를 구성한 결과,

학생의 목소리가 변화의 요인으로 닿지 않는다.

학교 프로그램은 충분하지만, 소속감으로 귀결되지 않는다.

위 상세 원인에 주목하였다.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두가지 Best Practice를 조사했다.



27. (A) (B) (C) (D) (E)
28. (A) (B) (C) (D) (E)
29. (A) (B) (C) (D) (E)
30. (A) (B) (C) (D) (E)
31. (A) (B) (C) (D) (E)
32. (A) (B) (C) (D) (E)
33. (A) (B) (C) (D) (E)
34. (A) (B) (C) (D) (E)
35. (A) (B) (C) (D) (E)
36. (A) (B) (C) (D) (E)
37. (A) (B) (C) (D) (E)
38. (A) (B) (C) (D) (E)
39. (A) (B) (C) (D) (E)
40. (A) (B) (C) (D) (E)
41. (A) (B) (C) (D) (E)
42. (A) (B) (C) (D) (E)
43. (A) (B) (C) (D) (E)
44. (A) (B) (C) (D) (E)
45. (A) (B) (C) (D) (E)
46. (A) (B) (C) (D) (E)
47. (A) (B) (C) (D) (E)
48. (A) (B) (C) (D) (E)
49. (A) (B) (C) (D) (E)

대구가톨릭대학교 진로체험 프로그램

구체적 예시

경북, 대구지역 고등학생에게 대학교 탐방과
전공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통해서 고등학생에게 하여금
진로와 전공의식을 제고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에 대구가톨릭대학교 선정

성공 요인

타겟인 대구, 경북지역 고등학생의 니즈를 충족,
대학과 고등학생의 커뮤니케이션이 **양방향**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2016년 자유학기제 추진이 교육부에서 진행, 이를 활성화한 프로그램.
즉 **이슈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성공 요인이 되었다.

기존 프로그램에서 학생의 needs라는 요소를 **한발짝 더 나아감.**

뉴로핏의 혁신적인 근무환경

구체적 예시

뉴로핏은 2016년 설립된 소프트웨어 개발업무를 하는 스타트업이다.

초과근무는 직원의 워라벨 형성에 큰 방해가 됨을 인지한 대표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해서 지각율 0%를 만든다.

야근에 대해서 근태기록을 분석하여 초과근로가 발생한 직원과 원인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토대로 인원을 충원하고, 대체휴가도 부여한다. **결과 사원의 수가 전년대비 3배 증가한다.**

성공 요인

스타트업이 마주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유연한 근무환경을 만든 것, 스타트업은 체계, 복지에 대해 구축되지 않아 직원 충원이 기업보다 어렵다.

이를 유연근무제를 통해 복지를 생각하고, 초과근로 대책과 OKR 평가와 가이드 북 배포로 체계, 소통이 가능한 모습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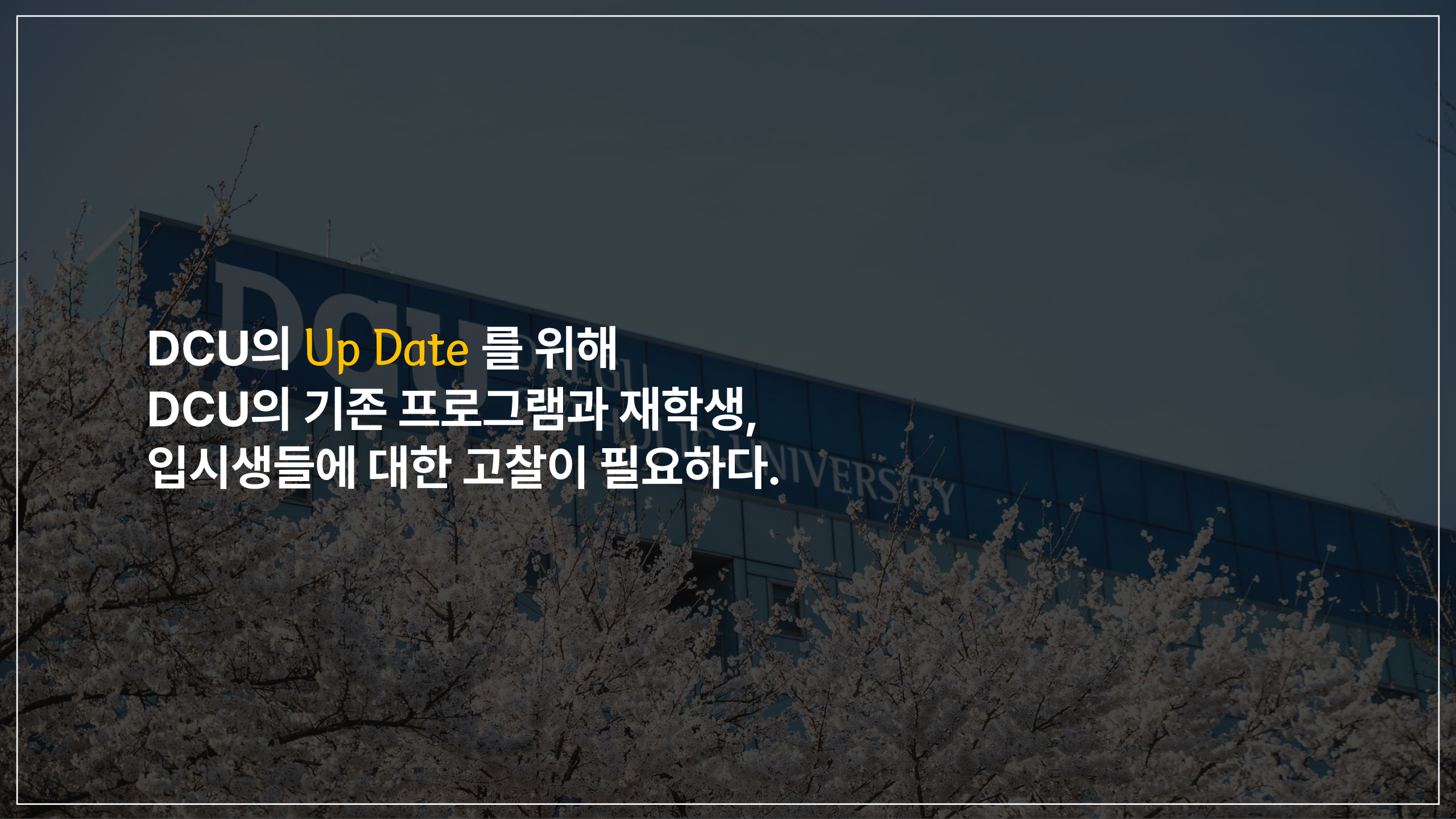
요약하면 **소통, 정보제공, 근무혁신이 성공요인**이 되겠다.

스타트업의 체계를 갖추기 위해 **소통을 진행하고,**
이를 프로그램으로 도입

Up Date : 갱신하다, 덧붙이다.

Best practice 를 분석해본 결과, 기존에 있었던 어떤 것(제도, 프로그램 등)
한 발자국 더 나아간 것이 공통 성공요인이라고 판단.

성공의 요인은 큰 변수가 아니다. 기존의 시점에서 하나의 요인을 추가하거나, 다르게 보거나,
변화시키기만 해도 이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불러일으킨다.

A photograph of a modern building with a blue facade and large windows, partially obscured by white cherry blossoms in the foreground. The building has 'DCU' and 'UNIVERSITY' visible on its facade. The text is overlaid on the left side of the image.

DCU의 **Up Date** 를 위해
DCU의 기존 프로그램과 재학생,
입시생들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입시생들의 입시 성향을 알아보기 위해
대구/경북권 4개의 고등학교 총 195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경상북도 경산시
문명고등학교



대구광역시
영남고등학교



경상북도 경산시
무학고등학교



대구광역시
조일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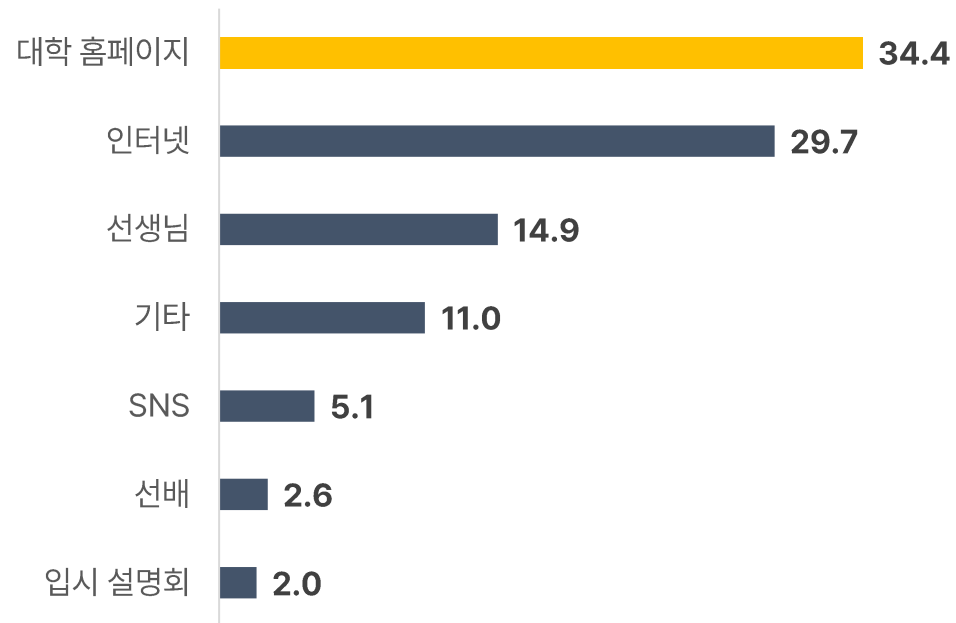
구조화된 설문지(구글 폼 활용), n=195,
설문일자: 학교마다 상이

입시생에게 정보탐색의 최초상기도는 대학 홈페이지였다.

대학 고려 변수에는 성적과 전공이 상위를 차지했지만, 다른 요소도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보였다.

Q. 귀하께서 대학교의 정보를 얻는 방법 중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법을 말씀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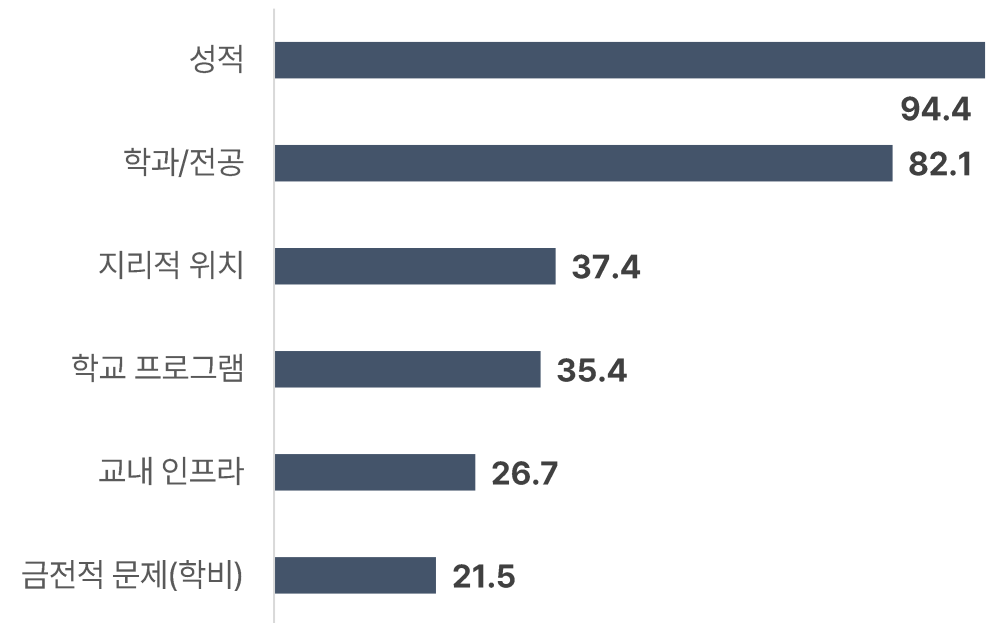
n=195, 단위:%



자료: Team 박하. 자체 정량조사

Q. 귀하께서 대학을 고려할 때 작용하는 변수를 모두 골라주세요.

n=195,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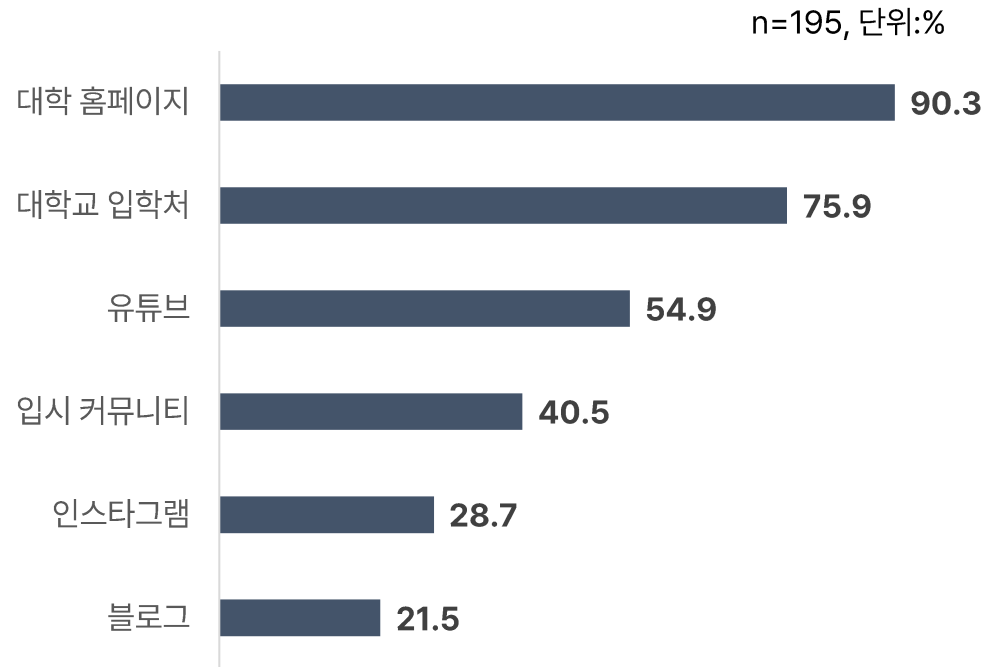


자료: Team 박하. 자체 정량조사

학생들은 이전에 비해 SNS를 입시 도구로 활발히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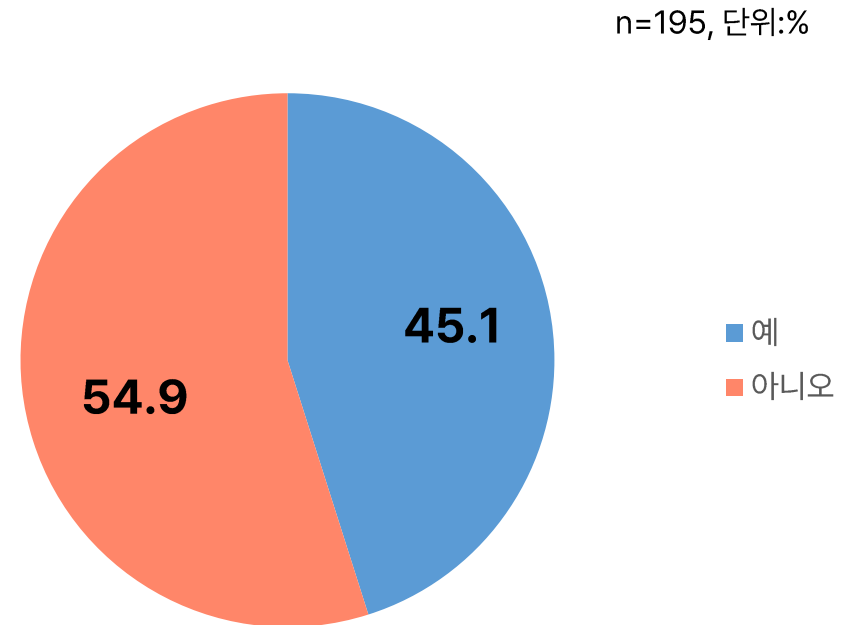
여전히 대학 홈페이지를 많이 사용하지만, SNS 사용 비중 또한 높은 수준이다.

Q. 귀하께서 입시 탐색을 할 때 사용하는 매체를 모두 골라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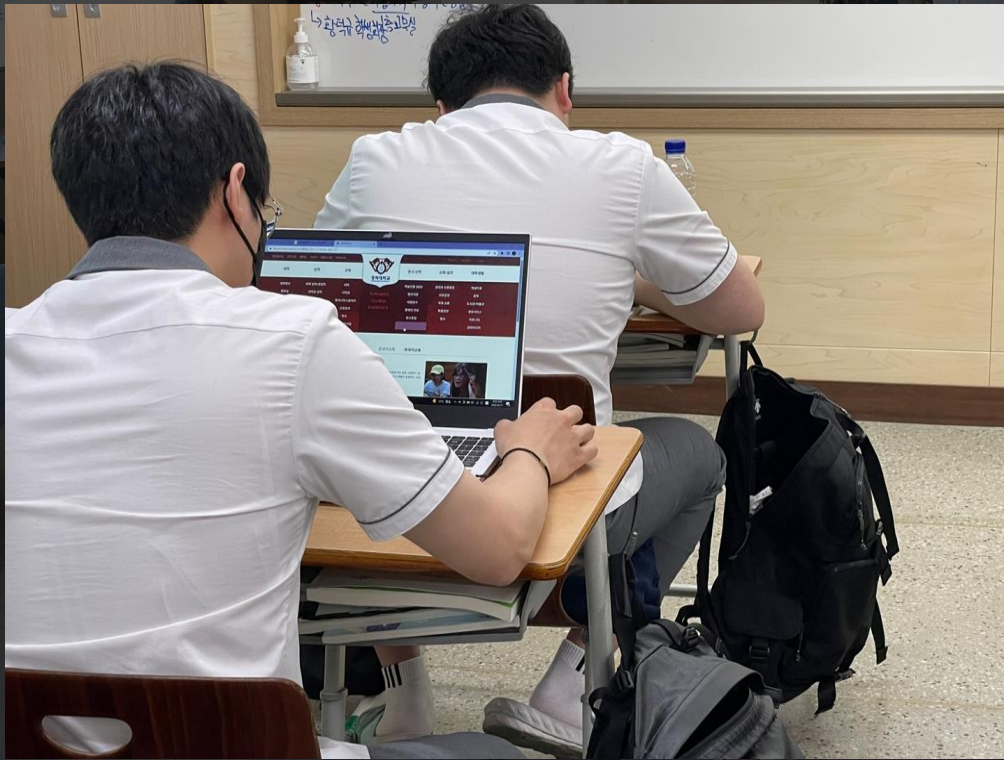
자료: Team 박하. 자체 정량조사

Q. 귀하께서 관심을 두는 학교의 SNS를 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료: Team 박하. 자체 정량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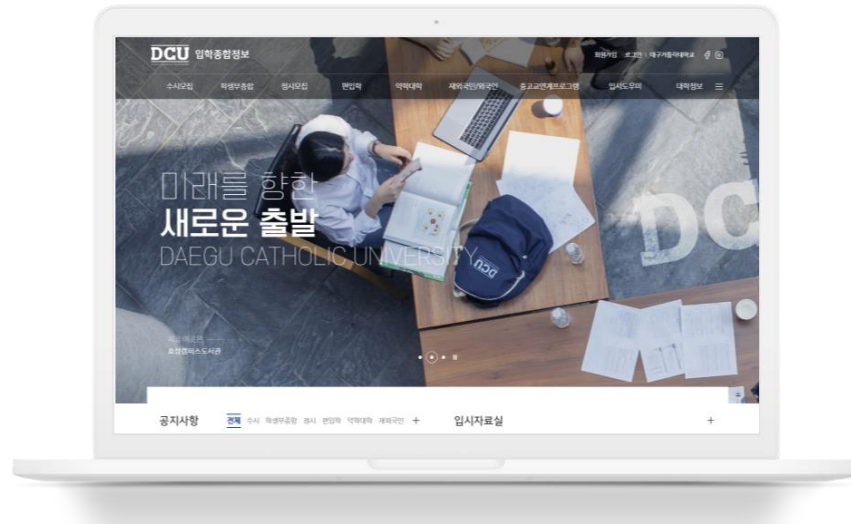
입시 성향에 대한 더 정확하고 깊은 정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피관찰자와 깊이 있는 접촉을 유지할 수 있는
참여 관찰을 진행하였음. 본 팀은 연구자의 신분을 밝히고 활동공간에 들어가 심층적인 관찰을 진행



2022.05.16 참여 관찰 진행

많은 인원이 대학 홈페이지 탐색, 무시할 수 없는 수치가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

총 36명 中



25명의 학생들은 대학 홈페이지를 들어가고, 이탈 후 입학처를 탐색하거나 프로그램, 대학생의 모습을 보는 등으로 나뉘었다.



11명의 무시할 수 없는 수치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미디어를 입시에 활용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대학 홈페이지 같은 곳에서 제공하는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싶었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SNS 매체에서 정보를 탐색함.**
이 배경에는 대학 측에서 입시생을 겨냥할 정도로
빠른 정보제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

자퇴를 고려하는 학생들과 CQI라는 평가 요소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인터뷰 진행



현재 재적 상황: 휴학(자퇴 고려 중)



현재 재적 상황: 휴학(자퇴 고려 중)



현재 재적 상황: 휴학(고민 중)

해당 학생들이 CQI를 열심히 하지 않은 이유에는 다음과 같은 매개가 작용했다.



Q. CQI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기타의견을 주관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귀찮았다**.



Q. CQI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바뀌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해당 학생들이 CQI를 열심히 하지 않은 이유에는 다음과 같은 매개가 작용했다.



Q. CQI에 성실하게 작성하시는 편이었나요?

A. 성실하게는 모르겠고 솔직하게 최선을 다했다.



Q. 다른 학생들이 CQI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A. 학교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이번 In-depth interview를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실제 공과대학 재학중인 한 학우는 교수님이 몇몇 설문지를 구기는 것을 목격했다.”

“참여도를 이끄는 방법이 오히려 익명이 아니라 실명제도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CQI의 제도 특성 상 익명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학생들이 할 말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보호 조치였던 익명제가 오히려 CQI를 활발히 하지 않는 매개가 될 수 있다는 인터뷰 결과를 도출하였고, 익명이기 때문에 어떤 교수는 학생의 의견을 소중히 하지 않는 모습 또한 목격 되었다.

'디쿠'라는 캐릭터와 '귀감'이라는 가치가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I am DCU에 게재된 학생 2명과 게재된 학생 3명으로 구성된 집단에서 FGI를 진행.

I am DCU



2022.05.09 FGI 진행

알리다!

해결 프로

'CAMA(카
대구테크노파
로해결 프로젝
에서 은상(한국
수상했다...

설문 결과,

'디쿠'라는 마스크트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마스크트라는 요소가 애교심 형성에 도움이 됨을 알 수 있었음. 하지만, 그 영향을 줄 요소가 부족한 상황.

I am DCU를 통해 대부분 학생이 자신감과 동기부여를 얻었음.

I am DCU를 인지하지 못하는 학생도 많았기에 **도달력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함.**



퀴즈를 풀면 디쿠 캐릭터 인형을 주는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의 모습



학교 홈페이지 I am DCU 배너

A student is sitting at a desk in a library, focused on their work. They are wearing a light blue shirt and are looking down at a book or document. A laptop is open in front of them. The library has tall bookshelves filled with books in the background. A desk lamp is visible on the desk to the left. The overall atmosphere is quiet and studious.

우리는 Target인 입시생, 재학생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깊은 통찰의 필요를 느꼈다.

**Team.박하는 자신의 입시 경험이 아닌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겠다는 판단 하에
올해로 7년 째 3학년 입시 전담 담임 선생님을 대상으로 In-depth interview를 진행.**



문명고등학교, 박종현 선생님

부모님들이 이제 입시에 대한 지식이 해박 해졌다.
이미 인터넷이 너무 잘되어 있어서 집에서 대학입시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탐색을 하고 판단을 한다.
고등학교에서 더 이상 대학에 대한 정보를 주는 시대가 아니다.

2022.05.11 In-depth interview 진행

Team.박하는 자신의 입시 경험이 아닌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겠다는 판단 하에 올해로 7년 째 3학년 입시 전담 담임 선생님을 대상으로 In-depth interview를 진행.

입시생들은 인터넷과 SNS를 통해 대학에 관한 정보탐색을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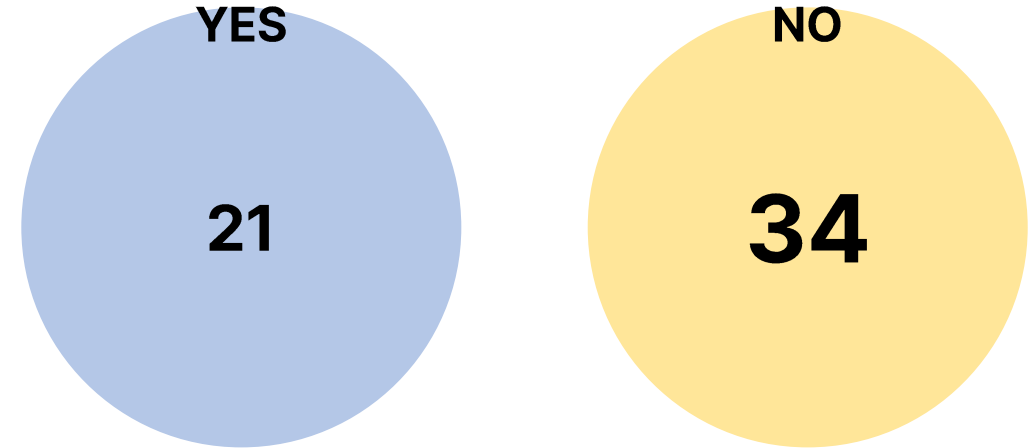
그렇기 때문에 정보는 한정적인데, 탐색이 빨라 정보가 고갈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DCU가 빠른 SNS 매체를 이용해 깊은 대학 정보를 제공한다면

입시생에게 효과적인 노출이 될 것이고, 입시생의 consideration set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입시생의 대학 선택과정에서 DCU가 상기될 수 있는 전략이 될 것이다.

먼저, 학생들이 애교심을 느끼는지, 또 그들이 생각하는 학교 이미지는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스티커판을 이용하여 애교심 동향조사를 진행.



학교에 대한 애교심이 없는 응답자가 더 많았고, 생각나는 학교 프로그램에 관한 질문에서는 대다수가 응답을 어려워했지만, NO집단은 MT, 축제 등 노는 것과 관련한 응답이 전부였다면, 특강과 취업 연계 프로그램 등의 응답은 오직 YES 집단에서만 나왔다.

먼저, 학생들이 애교심을 느끼는지, 또 그들이 생각하는 학교 이미지는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스티커판을 이용하여 애교심 동향조사를 진행.

YES

NO

스펙을 쌓는 프로그램을 상기한 학생들은 자신의 성장에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학생들에게 성장에 대한 보람은 학교 생활에서 꾸준히 쌓은 노력의 결실에서 이루어진다. 34

이러한 학생의 성장에서 학교는 수업과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환경의 역할이다.

대학교는 학생에게 단순히 거쳐가는 아카데미가 아닌 4년간 성장해가는 동지와도 같은 모습이었다.

이런 모습을 학생에게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이는 애교심 증가에 있어 최적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나는 학교 프로그램에 관한 질문에서는 대다수가 응답을 어려워했지만, NO집단은 MT, 축제 등 노는 것과 관련한 응답이 전부였다면, 특강과 취업 연계 프로그램 등의 응답은 오직 YES 집단에서만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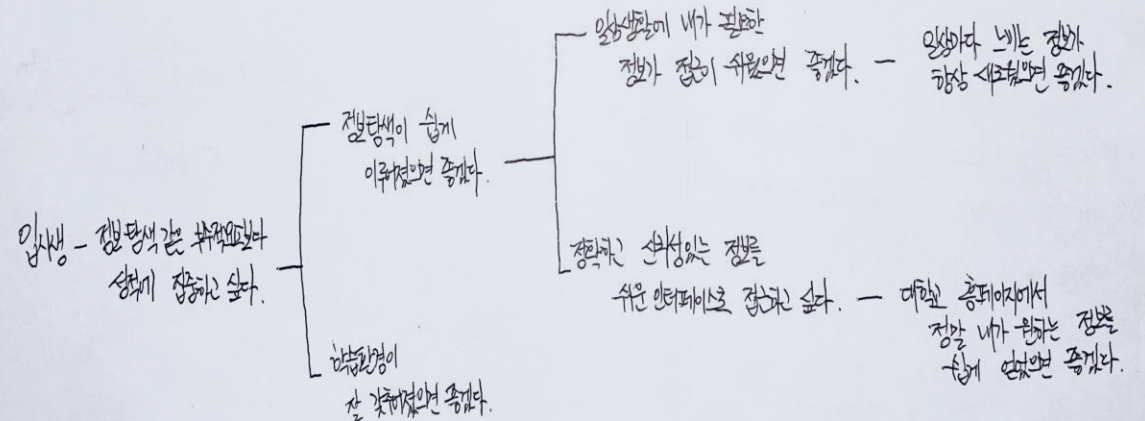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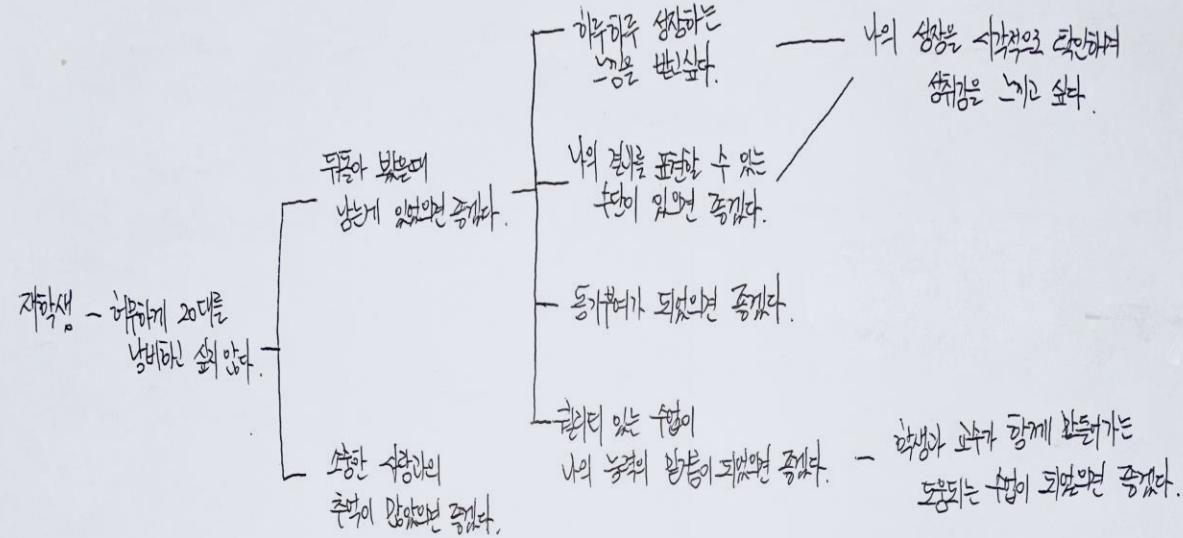
타깃의 이익을 명확히 하고,

솔루션으로의 실현을 위해

How tree 를 구성하였다.

How tree: 목표로 하는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익을 어떠한 솔루션으로 실현할 수 있는지를 정리하는 도구

How Tree



입학생

정보탐색 같은 부수적 요소보다 성적에 집중하고 싶다.

정보탐색이 쉽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일상생활에 내가 필요한 정보가 접근이 쉬웠으면 좋겠다.

일상마다 느끼는 정보가 항상 새로웠으면 좋겠다.

정확하고 신뢰성있는 정보를 쉬운 인터페이스로 접근하고 싶다.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정말 내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었으면 좋겠다.

학습환경이 잘 갖추어졌으면 좋겠다.

재학생

20대를 허무하게 낭비하고 싶지 않다.

뒤돌아 봤을 때 남는게 있었으면 좋겠다.

소중한 사람과의 추억이 많았으면 좋겠다.

하루하루 성장하는 느낌을 받고 싶다.

나의 결과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있으면 좋겠다.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다.

퀄리티 있는 수업이 나의 능력의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의 성장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며 성취감을 느끼고 싶다.

학생과 교수가 함께 만들어가는 도움되는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앞에서 분석한 타겟의 프로파일과 이를 통한 인사이트 그리고 How tree를 통해 컨셉 매트릭스를 작성.

요소	문제의식	-대학에 대한 입시 탐색이 빨라졌다.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필요성이 증대
	목적의식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으로 제공한다. -대학의 수준보다 대학생활에 초점을 잡아 차별화를 진행하자
고객의 체험	상황	대학생활을 하며 수업, 동아리, 프로그램을 겪는데 자신이 성장하고 있음 을 체감하지 못하고 육체와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
	이익	-학교를 든든한 성장의 든든한 배경으로 느낄 수 있다. -대학생활 동안의 성장을 느낄 수 있다.
속성	충실화	대학생활을 차곡차곡 이행하는 학생을 타겟으로 힘듦이라는 요소를 성취 감으로 승화시켜 줄 요소로 접근하자.
	옵션	-젊은 대학 이미지로 Communication에 집중하자 -학교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음을 물리적으로 멀지만 심리적으로 가깝다는 컨셉으로 접근하자 -대학에서 4년의 시간이 성장의 시간임을 두 눈으로 보여주자

One message

대학에서 4년의 시간이 성장의 시간임을 두 눈으로 보여주자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4년이라는 시간동안 성장해 뿌듯한 졸업을 할 수 있는 Team. **박하**의 컨셉 메시지

입학은 투**박**하지만, 졸업은 쌈**박**하게

전략 로드맵

재학생 대상

입시생 대상

낮음

CQI 실명화 제안

입시 Communication의 점검

전략의
깊이

I am DCU 프로그램의 확장

디쿠 키우기 어플

높음

관계 유지, 발전 전략

신규 유치 전략

Target

전략옵션 매트릭스

전략테마	옵션A	옵션B
고객	기존 고객과의 관계 발전	신규고객유치
중요도	충분한 소통과 검토 후 실행	적극적인 전략 실행



전략타이틀	기존 고객과의 관계 강화	신규고객 맞춤 전략
-------	------------------	------------

기본전략

전략타이틀: Up Date라는 개념을 통한 DCU의 프로그램 develop

배경

- 1) DCU는 지금까지 다양한 활동을 충실하게 실행
- 2) 타겟은 시대가 흐름에 따라 다양하고 다른 모습과 니즈를 가짐
- 3) Best practice에서 Up Date라는 가치의 성공을 보았음

DCU의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과 Team. 박하가 수집한 타겟과 상황에 관한 정보를 활용. DCU의 발전가능성 있는 프로그램을 타겟의 니즈에 부합하게 적극적으로 Up Date한다. 이를 통해 재학생과의 관계 강화와 입시생들의 고려 상표군에 DCU를 포지셔닝한다.

기대 효과

- 1) 재학생의 애교심 증가
- 2) 재학생의 니즈에 부합하는 학교의 프로그램으로 가치를 증명
- 3) 입시생의 consideration set에 DCU 포지셔닝

개별전략

전략타이틀: 입시 communication의 점검

배경

- 1) 정보탐색의 과정이 빠르고 효과적이었으면 하는 입시생들
- 2) 최근 많은 입시생이 SNS를 활용하여 대학 정보를 탐색
- 3) SNS를 통해 깊은 정보를 제공하는 대학의 수가 아직 적은 상황

입시생들은 더 이상 대학 정보를 입시 박람회나 설명회에서 탐색하지 않는다. 이른 시기에 SNS라는 매체를 활용하여 대학정보를 탐색하지만, 아직 전문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들은 대학 홈페이지에서 다룬다. 이런 시기에 대가대는 지금껏 해오던 입시 communication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대학 홈페이지의 인터페이스, DCU의 SNS계정을 통한 입시 콘텐츠 등을 입시생에게 맞춰 활발히 진행해야 한다.

기대 효과

- 1) 입시생 맞춤 커뮤니케이션 전략으로 DCU를 고려상표군에 위치 시킨다.
- 2) SNS로 입시 정보를 탐색하는 입시생에게 쉽고 전문적으로 도달한다.
- 3) 입시생에게 높은 선호도와 상기도를 얻어 경쟁 구도의 대학 중 선호도 및 상기도 1위를 차지한다.

개별전략

전략타이틀: I am DCU 프로그램 확장

배경

- 1) 학교를 다니며 보람찬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학생들
- 2) 자극과 동기부여가 필요한 학생들
- 3) 자신의 결과를 입증하는 시각적인 자료가 필요한 학생들

앞선 FGI를 통해 I am DCU가 귀감과 성취감의 감정을 느끼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많았는데, 그 이유는 학교 홈페이지에서만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I am DCU라는 콘텐츠를 학교 인스타그램 등과 같은 SNS의 콘텐츠로 확장하여 이 프로그램을 많은 학생이 인지하고 이를 통한 귀감과 성취감을 주고자 한다.

기대 효과

- 1) 학생들의 동기부여
- 2) 자신의 성취를 시각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성취감 부여
- 3) 학생들의 활동을 대외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학교 위상 향상

개별전략

전략타이틀: CQI 실명화 제안

배경

- 1) 학교를 다니며 배움을 원하는 학생들
- 2) 퀄리티 있는 수업을 통한 자신의 능력 향상을 원하는 학생들
- 3) 학생과 교수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발전된 수업을 만들어가고 싶은 학생들

지금까지 학생들이 강의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인 CQI는 익명으로 진행되어 왔다. 불만사항을 적는 시스템 상 학생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그 기능이 오히려 학생이 자신의 목소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바탕이 되지 않았을까?
CQI 실명화를 통한 솔직한 소통이 학생과 교수가 함께 만들어가는 수업에 도움을 주려 한다.

기대 효과

- 1) 학생들의 적극적인 CQI 참여
- 2) 더 적극적이고 솔직한 교수의 CQI 피드백
- 3)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서로가 원하는 수업 형성

개별전략

전략타이틀: 디쿠 키우기 어플 (디마고치)

배경

- 1) '디쿠'라는 마스코트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음
- 2) '디쿠'와 성장 모두 학생들이 애교심을 가질 수 있는 요인으로서 역할
- 3) 자신의 성장을 시각적으로 확인하여 성취감을 느낄 수단이 필요함

재학생들의 성장과정을 학교 마스코트인 '디쿠'를 이용하여 표현함으로써 친근감을 주며 시각적으로 학생들의 성장과정을 보여준다. 학생들은 이 어플을 이용하며 출석하기, 과제 기한 내에 제출하기 등 작은 퀘스트를 달성하며 디쿠가 성장하는 포인트를 모을 수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어플의 몰입도가 성실한 학교생활과 연결된다.

기대 효과

- 1) 재학생의 애교심 증가
- 2) 재학생의 성장과정을 시각화함으로써 만족도 증가
- 3) 학교와 학생간의 결속력 강화

Team. 박하는 다음과 같은 제약점을 발견

- 1) 195명의 입시생이 모두 대가대를 고려 학교로 설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설문 결과 전체가 대가대에게 온전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2) 대학 측에서 신입생이 적어지는 현상은 심각하게 받아 들이지만, 자퇴생이 늘어나는 것은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고 있다.
- 3) CQI 실명화를 적용했을 때, 강의평가의 적극성을 기대할 수 있지만, 실명화로 우려되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학생들과



대구가톨릭대학교
DAEGU CATHOLIC UNIVERSITY

가 **함께** 성장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Team. 박하